

† 마데테스는 켈자라는 뜻의 헬라어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를 소망하는 신자를 돕기 위해 발행됩니다 †

마데테스



표어 : 너나 잘하세요

은석교회는



교회를 나의 자존심으로 삼지
않으며 오히려 그 자존심조차
악으로 국청하며 스스로를
비관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진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교회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형통과 축복을
바라보지 않으며 오로지
불쌍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만
모이기를 힘씁니다.

잊고 사는 삶

신윤식

나도 한 때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기를 기대했다..

지금은 오늘도 내일도
내 기대와는 무관하게
그분 뜻대로 흐르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욕심 많은
영혼은 우울해진다.

하지만
잊고 사는 삶이 있으니
높은 욕망에서
낮아지게 하시고

화려한 세상을 향한
달콤하고 깊은 꿈에서,
조금씩 조금씩
깨어나게 하시는
그분의 일이 있다는 것.

한 해도 죄안에서 허우적거린 나를
어김없이 그분 앞에 세우며
생각지 못한 용서로
뜨겁게 눈물 흘리게 하는
그 분의 일이 나의 삶인 것을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석교회

교회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홈페이지 : <http://www.onlycross.net>

☎ (교회) 421-9049 (사택) 425-9049 (핸드폰) 010-5831-9049
(E-메일) sys5806@hanmail.net

발행인 신윤식 목사

발행일 2013.12.29

발행호수 제21권 52호

예 수님이 세상에 보 내심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입니다 (눅 4:43).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장 정확한 내용은 예수님이 전파

하신 복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즉 복음이 전파되기 전 인간이 기대하고 상상한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늘 어려운 문제로 다가옴을 실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실상보다는 허상에 더 기울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누구 하나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을 포함한 유대인은 물론이고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자신의 어린 아기를 만져 주시기를 바라고 데리고 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자기 아기를 만져 주시기를 바란 것은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신 것으로 소문이 퍼졌고 랍비로 여김받았습니다. 그러한 분이 자기 아기를 만져 주며 축복을 해준다면 아이가 무탈하게 잘 자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기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 바쁘신 예수님에게 어린 아이를 만져 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번거롭게 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어린 아이를 만져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시는 분으로 이해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세계에는 어린아이들은 끼어 들 수 없다는 것이 제자들의 사고방식이었음을 드러냅니다.

당시 유대 사회가 어린 아이를 무시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어린아이를 무시하고 책망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어린 아이를 귀하게 여기는 현대 사회라고 해

주일오전설교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

눅 18:15-17

서 다를 것은 없습니다. 현대의 부모들에게 아이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부모가 아이를 동일한 인격의 존재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아이보다는 부모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고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만 바라볼 뿐이지 부모를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존재로는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이보다는 부모가 더 낫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회적 지식이나 경제적 활동에서 아이는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을 예수님의 세계에 끼어 들 수 없는 수준 낮은 존재로만 바라봤지만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을 무척 당혹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을 뿐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히려 그런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17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라는 뜻일까요? 이것은 어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 되기에 너무 비약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의 순수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어른에 비해서 아이는 순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하다는 것이 죄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비록 아이라고 해도 자신이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자기가 하지 않았다고 고개를 젓는 것을 보면 실감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 가지 사회적 매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문명 속에 살아가는 현대 아이들은 순수하다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둔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라는 말은 어린아이의 성품이나 어른처럼 사회에 깊이 물들지 않은 것을 말씀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을 포함한 어른 누구도 이해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였다는 뜻일까요? 어린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어린이와 같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중점은 '어린이와 같은 사람이 누구인가?'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와 같다는 것은 어른의 손에 이끌려 나오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자기 스스로 예수님의 세계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른의 손에 이끌려 나왔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린이와 같다는 것은 자신을 누군가가 이끌지 않으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와도 연결됩니다. 자신의 의를 하나님께 말하는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세리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 됨을 고백할 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만이 자신을 하나님께로 이끄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철저하게 예수 의존적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지 않고 하늘로 주어지는 은총을 기꺼이 받아 누리며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교와 같은 종교의 세계에서는 이 같은 하나님 나라를 도무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지 않는 것을 인간의 무기력으로 치부할 것이 뻔하고 그것은 믿음의 역사도 성령의 능력도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른의 세계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어른의 세계가 아니라 어린이와 같은 사람의 세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른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무능력을 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부인하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믿음으로 내세웁니다. 이런 생각에서 '내가 하면

너보다는 잘 할 수 있다'고 구별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린이와 같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질서와 가치의 세계입니다. 때문에 그 생각이 세상 질서와 가치에 매몰된 사람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미미하고 매력이 없는 것으로 다가오는 당연한 것이고 관심을 두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막 4:11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비밀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 질서와 가치관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모두가 무능한 존재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 더 높은가' 다투고 비교하며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세리와 같지 않다는 의식은 하나님 나라가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상만 보려고 하는 답답한 존재입니다. 말씀이 보여주는 세상에 대해서는 마음을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손해와 이익의 계산 밖에 모르면서 오로지 내 이익만을 좇는 지극히 타산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아무 매력도 없고 우리의 욕망이 추구하는 것과는 하등에 상관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알고자 하고 갈망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오로지 자신의 세계에만 집중한 채 살아갈 뿐입니다.

이처럼 보이는 것이 전부인줄 알고 살아가는 육에 속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에 조금씩 마음을 두게 하시고, 그 나라를 보게 하시며 갈망하게 하시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한 감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육의 일로 인한 감사는 육으로 살아가는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주의 일하심을 알게 되고 감사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에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주의 일은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을 뿐 우리의 뜻과는 무관합니다. 가령 일본의 아베 총리가 아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 때문에 우리나라와 중국 정부가 항의를 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아베 총리가 아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때 지진이라도 발생했으면 하는 마음이 앞

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의 일과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일본이 통째로 물에 잠긴다고 해도 그 때문에 육으로 사는 인간이 비밀인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갈망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은 우리의 뜻과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안주하면서 하나님 나라에는 도무지 마음을 두지 않으려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비밀의 그 나라로 이끌어 가시고 그 나라를 알게 하시고 갈망하는 자가 되도록 일하시는 주의 일이 무능력한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하심을 믿으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이끄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결국 이 또한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인간이 내세우는 불만은 언제나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인가?’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함을 믿음과 연결시켜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행함이 있는 믿음에 비해 가치가 없는 것으로 바라보는 사고방식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로 들리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해야 할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는 말씀에 따라 어린아이 같은 사람으로 예수님의 이끄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를 이끄시는 예수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에 ‘그럼 그것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라는 토를 단다면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자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사회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든 바리새인처럼 ‘나는 이것 이것을 합니다’ 라고 자기 의로 삼아서는 안 되며 세리처럼 ‘불쌍히 여기사서 나는 죄인입니다’ 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신앙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고 말씀하

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현실성과 현재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에서 나타난다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는 제자들에게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장차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떤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며, 제자들을 세워 어떤 하나님 나라를 증거 하실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성령 받은 제자들은 더 이상 누가 높은가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됩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제자들의 삶에서 현재화 되어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같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와 실재를 사도 바울에게서 더욱 생생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질서와 가치의 세계로 우리에게 임하여 있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나라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게 하셔서 섬김과 겸손과 용서와 희생이라는 예수님의 길로 이끄시고 가게 하십니다. 이러한 주의 길로 인도 받는 신자에게서 나올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 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을 때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고 하자 헤롯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하였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면 결국 그가 기존의 왕을 밀어내고 새로운 왕이 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왕은 그 같

주일오우설교

시 145:1-9

위대하신 주

(149장 12.15일 설교)

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선지자의 기록을 따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두 살 아래의 사나이이름 모두 죽이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헤롯왕을 밀어 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가 왕이다'는 그 어떤 증거도 흔적도 보여주지 못하고 초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처럼 왕으로 나셨으면서도 왕의 모습을 전혀 볼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 되신 나라는 이 세상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주의 나라가 있으며 그 나라에 속하여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곧 참된 유대인으로 일컬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는 왕이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왕정 시대는 지나갔지만 여전히 한 나라를 대표하고 다스리는 왕 같은 지도자가 존재합니다. 세상은 왕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백성을 잘 살피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저자는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145편은 '다윗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고 이 시를 기록할 당시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을 생각해 본다면, 그런 그가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이면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일컫는 것은 자신의 왕 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헤롯이 자신의 왕권을 위협받지 않기 위해 아이들을 죽인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처럼 왕이면서도 자신의 왕 됨을 내려놓는 의미는 이스라엘을 자신이 통치하는 자신의 나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여기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145편을 보면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할 분으로 높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감히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시고 은혜와 긍휼과 인자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며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왕도 자기 백성을 하나님처럼 다스릴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아무리 위대한 왕이고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백성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위대

하신 나의 왕이라는 고백에 우리도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일컫는 것은 교회 안에서 흔히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시편 저자처럼 진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알고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앞섭니다. 말한 대로 저자인 다윗은 왕이면서도 자신의 왕 됨을 내려놓습니다. 반면 우리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나의 뜻대로 이루기 위해 분주할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고 위대하시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과 전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의미 없는 종교적인 고백으로 곁돌 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고 말합니다. 주의 나라는 주께서 통치하시는 세계를 말합니다. 저자는 이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주가 되어 통치하고 계심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의 통치가 자신에게 생명으로 다가옴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이 곧 그것을 의미합니다. 주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은 그 나라에 속한 백성 또한 영원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항상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면서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세상이 영원하든 영원하지 않든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심은 자신이 사는 날 동안 평안과 복을 누리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자는 인생이 '사는 날 동안'으로 끝나지 않음을 압니다. 사는 날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때에 심판에 처해지지 않고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영광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모든 은혜와 인자와 긍휼로 다스리며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통치에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된 마음으로 존재하는 신자입니다. 이러한 신자가 왕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힘이며 그 힘을 가진 자는 왕 노릇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향한 욕망에

서 벗어나지 못하고 돈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돈은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따라서 돈보다는 진리가 더 가치 있고 소중합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우리 마음은 늘 돈으로 기울어집니다. 돈은 현실인 반면에 진리는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현실이며 현재입니다.

사도는 욕에 간헐하면서도 기뻐하고 찬송했습니다. 이것이 진리가 힘이 되어 나타나는 현실이며 현재입니다. 즉 돈으로 사는 현재가 있는 반면에 진리로 사는 현재가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 사는 현재는 몸은 편할 수 있으나 그 영혼은 자유롭지 못하지만 진리로 사는 현재는 영혼을 자유롭게 합니다. 몸이 고달프고 편함과 상관없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영원을 소망하게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추구할 현재는 바로 이것, 자유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요” 라고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신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모든 뜻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은 자신의 뜻과 연결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연결된 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있기에 그 소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왕이시고 위대하시며 은혜와 인자와 자비와 긍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신자가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 23:1)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존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그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방 나라의 멸망이 유다와 무슨 연관이 있기에 유다를 향해서 그 같은 멸망 예언을 하시는 것일까요? 49장에서는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술, 엘람 등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이방 나라의 멸망에 대해 예언합니다. 사실 유다 입장에서 자기들 주변에 존재하면서 귀찮게 했던 이방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에 대해 아쉬워하기보다는 잘 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 나라가 멸망하면 그 땅이 손쉽게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유다 또한 하나님의 멸망 선포에서 자유롭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멸망의 대상인 이방 나라에 보내시지 않고 유다에게 보내신 것은 유다로 하여금 이방 나라를 바르게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이방 나라가 멸망의 선고를 받긴 했지만 말씀이 성취되기 전의 이방 나라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모습으로 존재하는 선악과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보다 더 많은 부를 누리는 부러움의 대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예언에서 보게 되면 모든 이방 나라는 현재의 모습과 상관없이 생명에서 떨어진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확정되어진 이방 나라의 운명이며 또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눈에 좋게 보인다고 해서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세상의 좋고 나쁨을 구별하고 걸러낼 수 있는 기능이 이미 상실되었습니다.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좋게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도 좋게 여기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일 뿐입니다.

4절에 보면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네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고 말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과 그 주변의 땅은 물이 귀합니다. 따라서 물이 흐르는 골짜기는 풍요를 상징한

수요일설교

렘 49:1-6

각 나라의 멸망 예언

(103강 12.11 설교)

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귀한 가치가 있고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하지만 골짜기가 스스로 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물을 흐르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이 흐르고 마르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흐르는 골짜기가 있다는 것은 자랑거리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한다는 것은 물을 흐르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잊고 다만 좋은 것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자신을 자랑하는 것일 뿐입니다. 즉 헛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의뢰하는 것 역시 동일합니다. 세상은 재물을 힘으로 여기고 의지합니다. 재물을 자신의 안전으로 생각하지만 그 재물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헛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실체임을 잊는다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 자체를 무시하거나 믿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이 바로 유대였습니다.

심판이라는 틀에서 바라본다면 중요한 것은 심판에서 건짐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이며 그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중요한 것은 흐르는 골짜기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이방 나라의 멸망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이방 나라가 자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풍요를 누리는 이방 나라라는 늘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자신들을 이방나라와 같은 풍요로 이끌어 주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멸망의 대상인 이방 나라를 세워서 유다를 무너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유다의 기대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가 되게 하신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 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는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고 말합니다. 이방의 멸망 이유는 교만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심판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끌어냄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에 선언된 종말의 형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백성에게 하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심판 앞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재물과 힘을 인간이 원하는 대로 부어주시는 것이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헛된 것으로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헛되다고 한 것을 자기 백성에게 주시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만 염두에 두어도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은 크게 잘못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0-21절을 보면 “그러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와 의도와 데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와 계획을 들으라 양 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라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고 말합니다.

에돔에 대한 여호와와 의도, 데만 주민에 대해 결심하신 여호와와 계획, 그 모두는 심판입니다. 세상에 대한 의도와 결심 역시 동일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운명을 안다고 하면서 이방인과 동일하게 먹고 사는 문제에 신앙을 이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에 정해진 운명에서 건짐 받는 것에 뜻을 두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재미있다 재미없다’ 를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결심이 실행될 때 나를 구원하는 힘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힘을 붙드는 것입니다.

멸망이 선포된 이방인이나 우리나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똑같이 멸망을 받아야 할 존재이지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양의 피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능력이 되기에 신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멸망의 세상에서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사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주어졌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복 있는 사람입니다.

■ 오전예배 ■

11시 / 인도 신윤식 목사

목상기도 : 다 함 께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9장

교 독 : 36(시90편)

기 도 : 이영민 장로

찬 송 : 508장

성 경 : 눅 18:15-17

말 씀 : 어린아이와 하나님나라(89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292장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7장

축 도 : 설 교 자

■ 오후예배 ■

2시 /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183장

기 도 : 조길옥 집사

찬 송 : 220장

성 경 : 시 147:1-11

특 송 :

말 씀 : 기뻐하시는 자(151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453장

주기도문 : 다 함 께

■ 수요일예배 ■

7시 3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예레미야 강해(106강)

■ 교회소식 ■

1. 201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의 빠른 속에서 우리가 인생의 끝에 설 날도 빠르게 다가온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끝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 2014년 달력이 남았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3. 계시판에 부착된 제직임명과 주일식사봉사자 명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다음 주에 공동의회있습니다.

다음주 기도

오전 - 조규현 장로 오후 - 이인혁 집사

이단 63 - 김기동 귀신론

김기동 목사의 신학 사상의 중심이 귀신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사단박멸에 있다고 주장하는 데서부터 드러난다. 하지만 이 주장에는 한 가지 의문이 따르게 된다. 그것은 사단 박멸이 하나님의 목적이려면 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사단을 멸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기동 목사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사단을 진멸하심으로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이러한 그의 주장을 보면 예수님의 본질적 사역을 사단을 진멸하는 것과 연관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요일 3: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고 말한다. 즉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마귀를 멸하는 것이 아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김기동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으로 말하는 것이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 활동한다. 마귀 활동의 내막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에서 알 수 있다. 펍과, 세상 영광과, 신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자기중심적 사상이다. 결국 인간을 예수님으로부터 단절시키기 위해 마귀가 하는 일은 자기 부인이 아닌 자기 영광을 자기 이름을 쫓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귀론의 전문가로 자처하는 김기동 그가 곧 마귀 들린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굳이 김기동 한 사람에게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이를 지칭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이라는 책망을 들은 적이 있다. 장차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께 그리 하지 말라는 만류한 것이 이 유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셨다. 그것이 사단이라는 것이다. 즉 사람의 일이 사단의 일이라는 의미다. 나를 위해서 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신앙이라는 것 또한 자기를 위한 사람의 일이라면 성경과는 무관한 사단의 일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단에 대한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

김기동 목사는 “예수를 알려면 마귀를 알아야 되며 마귀를 모른다면 예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는 많이 아는데 마귀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이는 예수를 모른다는 말과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이 말대로 신자는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 한국 교회의 취약점은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한국 교회는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마귀를 단지 신자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존재로만 인식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을 마귀에게 승리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곧 마귀에 대한 성경적 지식이 너무 유아적이라는 증거다.

이런 점에서 보면 마귀를 알아야 한다는 김기동 목사의 말은 틀린 것이 아니지만, 중요한 오류는 그조차도 마귀에 대해 모르고 있으면서 마치 마귀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한다는 점이다. 결국 마귀를 모르니 예수를 모른다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자신부터가 그 말에 해당하는 답을 알지 못하는 것이 답답할 뿐이다.